



영혼에 달은 언어

김유미 지음 | 홍성사

내가 특수교사라고 하면 사람들은 평소 장애에 관해 궁금했던 점을 질문하곤 한다. 얼마 전에 초등학교에서 수화통역을 하는 분을 알게 되었는데, 나에게 청각장애 학생의 교육에 관한 것을 물으셨다. 나는 '선생님, 제가 특수교사로 12년 근무했지만 지적장애 특수학교에서만 근무해서 청각장애에 대해 아는 게 없습니다. 오히려 앞으로 선생님이 제게 가르쳐 주셨으면 합니다.'라고 답했다. 이것은 겸손의 표현이 아니다. 현재 한국의 교육 관련법에서 특수교육 대상자로 지정한 장애 영역은 11가지인데, 모든 영역에 대한 지식과 경험, 관점을 가지기에 12년은 터무니없이 짧은 시간이었다. 나는 교육 현장에서 다양한 교육적 요구를 지닌 학생들을 만나면서 부단히 공부해야 할 필요성을 체감했다. 그 과정에서 인간과 교육에 대한 나의 그릇된 관점을 발견하고, 사회적 통념을 비판 없이 수용한 것을 반성할 기회를 얻었다. 이 책을 읽으며 나는 청각장애와 수화에 대한 그릇된 이해가 여지없이 깨지는 경험을 했다.

장애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과 차별적 태도는 은연중에 사용하는 '정상과 비정상'이라는 표현에서 드러난다. 그러나 장애 관련법이 수차례 개정되어 권고 조항이 의무 조항으로 바뀌고, 그것을 사회가 내면화하는 과정에서 사람들의 인식도 달라졌다. 최근 언론과 출판물에서는

'장애와 비장애'라는 표현을 자주 접할 수 있으며, 지난 8월 법제처에서는 법령 중 '정상인'이라는 표현을 '비장애인'으로 바꾼다고 발표했다. '장애와 비장애'는 장애에 관한 긍정적인 인식 변화와 장애 수용 노력이 엿보이는 용어이지만, 이 표현에 또 다른 문제는 없을까?

청각장애인 vs 농인

이 책에서 저자는 '청각장애인' 대신 '농인', '비장애인' 대신 '청인'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이것은 단순한 용어 선택이 아니라 이 책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을 고스란히 담고 있다. 청각장애인과 농인 사이에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 저자는 '청각장애인'이라는 호칭은 현재 보편화되고 공식화된 용어이지만 병리학적 관점에서 나온 것으로, 농사회 당사자들은 자신들을 그렇게 부르지 않는다고 말한다. 반면 '농인'은 언어적 소수자이자 문화적 존재로서의 이해를 담고 있는 호칭으로, 농사회 구성원들이 스스로를 칭하는 용어라고 설명한다.

농을 영문으로 표기할 때, 소문자 'd'로 표기하면 '귀가 거의 들리지 않는 농(deaf)'을 의미하지만, 대문자 'D'로 표기할 경우 '문화적 존재, 언어적 소수자로서의 농(Deaf)'을 의미한다(91p). 병리학적 관점-deaf로 보면 농인은 결함이 있고 재활이 필요한 존재가 되고, 문화

인류학적 관점-Deaf로 보면 그들은 공통된 삶의 양식을 가진 문화집단이 된다.

이 책은 이들의 정체성이 장애인인 아닌 '언어적 소수자'라 밝히고 있는데, 반갑게도 지난 8월 시행된 '한국수화언어법'은 이 관점을 그대로 수용했다. 한국의 장애인관련법 중 청각장애인이 아닌 '농인'으로 표기한 것은 이 법이 유일하고, 여기에는 '한국수어가 국어와 동등한 자격을 가진 고유한 언어'라고 명시되어 있다.

이 법은 농사회의 언어권 확보와 확대를 기대하게 한다. 그 기대는 어떻게 실현되겠는가. 우리는 한국수어를 하나의 언어로, 농인을 언어적 소수자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 이것이 실현된 사회의 모습을 상상할 수 없다면 『마서즈 비니어드 섬 사람들은 수화로 말한다』에 소개된 이야기를 살펴보자.

미국 매사추세츠 주의 마서즈 비니어드(Martha's Vineyard) 섬은 미국 대통령들이 즐겨 찾는 휴양지로 알려져 있다. 이 섬은 1604년 처음 발견되었고, 1640년대에 영국 켄트 지방 사람들이 이주해 정착하기 시작했다. 이 주민들은 청각장애의 열성유전자를 보유한 사람들이었고, 이후 200여 년 동안 섬의 고립성으로 근친결혼이 빈번해지면서 사람들 사이에 청각장애 유전자가 널리 퍼졌다. 비니어드에서는 평균 155명에 1명 꼴로 청각장애가 나타났고, 섬의 한 마을인 칠마크라는 마을에서는 그 비율이 25:1이었다. 이 섬에서는 청인들도 수어를 자연적인 언어로 배웠고,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것을 자연스럽게 수용하였다. 농인이 수어를 이해하지 못하는 청인에게 당당하게 화를 낼 수 있는 곳이었다. 비니어드 섬 이야기는 농인이 청인 문화에 자신들을 맞추지 않고 장애로 인한 좌절감을 느끼지 않는 사회를 상상할 수 있게 해 준다. 농인이 언어적 소수자로 받아들여지고, 수어가 하나의 언어로 받아들여지는 사회는 불가능하거나 그럴 수 없는 것이 아니다.

비니어드 섬 통합의 원동력은 무엇이었을까? 이 섬에서는 청인들이 영어와 수어를 이중언어로 사용하여 농인

과 청인 사이에 의사소통의 장벽이 없었다. 한 사회에서 언어는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한국수어의 연구 주체는 누구?

이 책의 각 장에서는 한국수어가 농문화의 정수이며 농문화를 상징하는 언어임을 직·간접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언어를 삶의 형식과 관련지은 철학자 비트겐슈타인의 견해는 이러한 생각을 뒷받침해 준다. 언어는 한 사회의 삶의 형식을 반영하는데, 이것은 음성 언어뿐만 아니라 손짓·몸짓 언어도 해당될 수 있다. 수어를 통해 두 사람이 의사소통을 하고 있다면 그들은 이미 삶의 형식을 공유하고 있는 것이다. 농인들의 수어는 하나의 언어로 손색이 없고 문화를 공유한 공동체의 언어이다. 그러면 농사회의 언어 연구는 누가 해야 할까?

'덴마크 정부가 덴마크어 연구를 한인 교포들에게 맡긴다. 덴마크어를 한국어 어순으로 바꾸어 덴마크인과 한인교포의 의사소통을 가능하게 한다.' 이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소리인가. 그런데 현재 한국수어 연구에서 이처럼 말도 안 되는 일이 공공연히 벌어지고 있다. 이 책은 청인 주도의 수어연구 현실과 청인들이 농인들을 주류 사회로 편입시키려는 여러 행태를 소개한다. 대표적으로 인공와우 권장이나, 수어 표준화 등의 예를 들며 저자는 언어까지 결정하려는 청인들의 논리와 현실을 비판한다.

'이천만 원이 넘는 인공와우 수술, 무상 지원합니다.' 청각장애가 있는 사람에게 이 얼마나 기쁜 소식인가? 그런데 정말 그럴까? 저자는 인공와우는 소리의 세계를 유일한 가치로 규정하는 선택이기 때문에 농사회에 위협이 된다고 말한다. 그리고 인공와우 수술 확대가 수어의 몰락, 수어를 통해 피어난 농문화의 소멸을 가져올 것을 우려한다.

수화 표준화 논의에 대해서는 '농인들이 사투리로 인해 소통에 불편을 겪고 있어 표준화 연구가 시급하다'는 논리를 펴는 것을 삼가해 달라고 부탁하며, 농인들은 다른

지역의 농민들과 소통하며 별 불편을 느끼지 않는다고 말한다. 오히려 표준화란 이름으로 한국수어의 다양성이 훼손되는 것을 우려한다. 저자는 또한 수어 연구의 주체가 청인인 경우가 많아서 한국수어 연구물들에 왜곡된 측면이 있음을 지적하고, 한국수어 연구에서 한국어와 청인 문화의 개입은 배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의 대안으로 제시하는 것이 '농민 당사자에 의해 주도되는 연구'이다. 이때 청인 연구자의 역할은 농민들이 그들의 문화와 언어를 제대로 연구할 수 있도록 길을 터주는 것, 농민들을 다음 세대 연구자로 키워 내는 것이다. 농민을 언어적 소수자가 아닌 장애인으로 보는 시선, 농민들의 언어와 문화 연구가 타인의 손에 맡겨진 현실, 언어의 차이로 인해 늘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이들의 인생을 저자는 '타향살이'로 표현한다. 타향살이로 충분히 고단한 이들에게 우리 사회는 또 하나의 과중한 부담을 지우고 있지는 않은가?

헬렌 켈러 피로증후군?

언론에서 장애가 있는 사람들은 극한의 노력으로 장애를 극복했거나 타인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는 시혜적 존재로 그려지는 경향이 있다.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는 장애인의 모습을 담담하게 그려 낸 영상은 찾아보기 어렵다.

이 책에는 '헬렌 켈러 피로증후군'이라는 표현이 나온다. '장애'의 꼬리표를 달고 살아가는 공동체가 주류 사회의 시선에 압도되어 '장애 극복'이라는 신화의 재생산 과정에서 느끼는 피로감을 말한다. 그녀는 이제까지의 농교육이 구화 획득, 장애 극복을 가장 큰 가치로 내걸어 농 학생들이 '수화는 열등한 것', '농민은 열등한 존재', '청인은 온전한 존재'인 것처럼 학습 받고 성장한 현실에 탄식한다. 그 결과 농사회에는 자기 문화에 대한 이해나 자부심이 뿌리 내릴 기회가 없었고 그 과정에서 농민들에게 제시된 롤 모델이 바로 '헬렌 켈러'이다. 농민들은 장애를 극복해 헬렌 켈러의 길을 갈 것을

강요당하며 살아가고 있다.

장애 극복이 아닌 있는 그대로의 현실을 긍정하며 생의 변화를 마주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일까?

심리학자로 알려진 비고츠키는 농·맹인의 발달과 교육 연구에도 놀랄 만한 업적을 남겼다. 그는 기존에 병리학적 관점으로 청각장애를 보던 것을 비판하고 사회·문화적 관점에서 '손상학'을 말했다. 손상학은 모든 인간은 저마다의 손상을 가지고 있고, 이 손상이 사회적으로 보완되는 과정을 통해 발달이 일어난다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청각장애도 그 손상 중 하나에 불과하다. 이대로 한다면 손상은 극복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보완'되어야 하는 것이다. 손상학에서 인간의 눈과 귀는 단순히 물리적 기관이 아니라 사회적 기관이기 때문에 인간의 삶에는 '타인'의 존재가 필수적으로 요청된다. 이 책은 독자에게 그 타인이 되어 달라고 초대하는 듯하다. 나아가 타인이 갈 길까지 어렵פות이 보여 준다. 그 길은 농민들 곁에서 그들과 함께 호흡하고 고난과 아픔을 나눈 저자의 흔적에 고스란히 담겨 있다.

『영혼에 닿은 언어』라는 제목만 보면 이 책은 '수어'에 관한 책이라고 생각될 수 있다. '수어'라는 용어 자체가 낯선 것이어서 이 책에 쉽게 손이 가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저자가 농사회와 함께한 29년의 경험을 토대로 풀어낸 이 책은 수어, 농민, 농문화를 우리 주변의 가까운 이웃에 대한 이야기로 다가오게 한다. 이는 '수어로 시작된 질문이 농민과 농사회에 대한 이야기로 연결되어 따뜻하고 풍성한 대화가 되길' 바라는 저자의 마음이 내 영혼에도 닿았기 때문이 아닐까.



글 | 김봉례

초등 특수교사. 현재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윤리교육과 박사과정에 있다.